

부고 - 강릉중친회 안당 安塘 권승옥 權承錡 고문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월 11일 강릉중친회 안당 권승옥 고문(복야공파, 36세, 권성동 국회의원 부친)께서 향수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故人)께서는 강릉(江陵) 명륜고등학교(明倫高等學校)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시고 강릉명륜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평생을 교직에서 후학양성에 힘써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릉중친회 창설에 앞장서셨고 그 후 죽친들의 친목모임인 "화심회(花心會)" "화산회(花山會)" 등을 결성하여 중친들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셨으며, 강릉중친회장을 역임하셨고 정유년(2017년) 태사공 추향제(秋享祭) 수임(首任)을 제수받는 등 늘 중사의 중심에서 중친회 발전에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복야공파 대사성공(大司成公) 종중(宗中) 종회장 재직하면서 임향조를 비롯한 선대 산소 여러 대(代)의 묘역정화사업을 추진하셨고 선대(先代) 학동공이 건립한 경포팔경(鏡浦八景)의 하나였던 소설된 정자 "환성정(喚仙亭)"을 지자체 지원을 성사시켜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 건립하여 선대 유적지를 되찾게 되어 후손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 주셨습니다

장례식에는 권해옥 대종회장, 권세목 복야공파 파종회장의 정중한 조의를 비롯하여 죽친, 지인들과 수많은 정관계 유명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인의 고향인 성산면 관음리 안국동 선영자락에 먼저 가신 부인들과 삼합림으로 모셨다. 강릉중친회에서는 노제(路祭)를 올려 고인(故人)의 공덕과 노고를 추모하였다. 강릉중친회 사무국장 권기동

부고 - 안동권씨 종보 권혁세 기자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2년간 안동권씨 종보 기자로 근무하던 권혁세씨(부정공파, 안동시 평화1길 24)가 2월 11일 새벽에 별세하였다. 향년 86세. 빈소는 안동성소병원. 장지는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선영하.

그는 1980년부터 42년간 안동권씨 종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안동권씨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단신, 미담 등을 취재하여 종보에 게재하였으며 아울러 안동권씨 종보 보급에도 힘써왔다. 장례식장에는 권해옥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중친회장, 안동권씨 능곡회가 대형 조화를, 권혁세 안동시장이 근조(謹弔) 기(旗)를, 권오을 전 국회의원총장이 소형 조화를 각각 보내오는 등 각계에서 조화를 보내왔다. 현재 미망인 이정희(77)여사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1974년 12월에 장간한 안동권씨 종보는 48년째인 지금도 매일 한 차례씩 국, 내외 안동권씨에 관한 소식을 알리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능동장학회 2022년도 장학생 선발

능동장학회는 2022년도 장학생 10명을 선발하여 21일(월) 본인 및 보호자 예금계좌로 각각 100만원씩 이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번호	성명	종파	대학교	학년	거주지
1	권지형	부호장공파	동국대/컴퓨터학과	4	용인(여)
2	권미정	부호장공파	동아대/사회복지	3	안동(여)
3	권기범	추밀공파	울산대/산업공학	2	대전(남)
4	권혜정	복야공파	안동대/사학과	3	안동(여)
5	권에원	복야공파	한림대/사회학과	1	양양(여)
6	권유리	좌윤공파	한동대/컴퓨터공학	3	경주(여)
7	권미수	별장공파	경상대/사법대	3	안동(여)
8	권원빈	시중공파	대구한의대/IT의료	2	포항(남)
9	권은서	정조공파	대구과학대/물리치료	1	봉화(여)
10	권오영	경교공파	경희대/관광학부	1	예산(여)

권수용 대종회 부회장 새해 권율 장군 참배

권수용 대종회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1월 29일(토) 오후 세계 평화여성연합고 양시 덕양지부 회원과 함께 행주산성에 위치한 권율 장군 동상에 참배하고 총장사와 행주대첩 기념비 등을 둘러보며 권율장군의 호국정신과 애국사상을 되새기면서 100만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시다 아케미, 구보타 준고, 나가무라 가즈미, 권수용 부회장, 오오카와 마리코, 우에다 도시코(왼쪽부터)

인 '포괄적 협의기관'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중심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인 '국제서비스 프로젝트'를 국경과 인종을 넘어 참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도지부와 200여 소속 지부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화합 및 평화를 위한 시민교육, 지역봉사활동, 지구가족사랑 1% 운동과 가자아이드림(GAZA iDream) 등 나눔·봉사 프로젝트와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동정



▲권우대(權羽泰, 복야공파, 33세) 강릉향교 제 91대 신임 전교(典校)가 지난 2월 23일 강릉향교 명륜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권우대 전교는 "세계 최고의 향교를 자부하고 있는 강릉향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 석전대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권우대 전교는 대기업 CEO를 끝으로 귀향해서 강릉향교에 입문한 후, 성균관 청년유도회 강릉지부 회장과 성균관유도회 강릉지부 왕산지회장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강릉지부 부회장을 역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간하고 있는 강릉향교 유림기관지인 '청년유림(靑年儒林)'지(紙)의 창간을 주도하고 기획·취재는 물론 집필을 맡아 오고 있다.



▲권석환(權石煥, 복야공파, 34세)씨는 지난 1월 26일 실시된 제16대 안동 문화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오는 3월 초 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권석환 원장은 복야공파 판서공(諱: 淵)의 19세손으로 안동중, 안동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안동대학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3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사단법인 전통문화보존회 초대이사장,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국가무형문화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전승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안동문화원 이사, 안동청년유도회 회장, 경북청년유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퇴계의 문인이자 대학자 권호문 선생의 후예이기도 하다.



▲권준환 농협은행장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동백장 수상을 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훈장 중 최고 훈격이다. 권 회장은 주민 주도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공동체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사업'에 금융자금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권대일 제44대 전북병무청장이 취임했다. 권대일 신임 청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2002년 제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재정과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교육훈련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권 신임 청장은 국방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권기형(權奇亨, 추밀공파, 36세) 전 우리에프 아이에스 대표이사 신용보증기금 은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권기형 감사는 1958년생 경북 문경 출신으로 계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 감사실장, 기업영업본부장, IB사업단 상무, 부행장, 우리에프 아이에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4년 2월 13일까지 2년이다.



▲권영화 평택시의원이 '제11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권영화의원은 '의정연 구발전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의원 가운데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권재범(權宰範, 추밀공파, 39세) 정치학박사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학과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권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2010)와 후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석사(2014)를 취득했으며, 네브래스카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정치학박사 학위(2019)를 취득하였다. 귀국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21+ 연구팀 계약교수(2020-2022)를 역임한 바 있다. 부친은 권선홍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이다.

[고별사송별辭]

안당 安塘 권승옥 權承錡 선생님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먼 길 떠나시는 권승옥(權承錡) 선생님의 영전(靈前)에 술 한잔 올리면서 삼가고별(告別)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아가는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셨고 인생의 무게를 일깨워 주신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님이었습니다.

혈족(血族)이라는 인연(因緣)의 소중함을 몸으로, 마음으로 몸소 실천하시면서, 때로는 자애로운 아버님이었고, 큰 형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종사(宗事)에 임해서는 문중(門中)의 큰 어른으로서 집안을 아우르시고, 족친(族親)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조상님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고, 후배들의 부족한 부분은 표나지 않게 다독여 주시면서 송조애친(崇祖愛親)의 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행여, 당신의 처신 때문에 자식들의 행보에 혹 누(累)가 될까봐 말씀 한마디, 걸음 한 발짝에도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고, 노심조사 조심하시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知人)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시겠다고 날짜까지 잡아 놓으시고,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쁘신지 이렇게 황급하게 떠나시려 하십니까? 선생님이 남기신 약속은 유언(遺言)이라 생각하고 제가 대신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못다 하신일 하고 싶던 일들은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잘해 내겠습니다.

어릴적 자라고 뛰어노시던 이곳, 봄이면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안국골 양지바른 산록에서, 그렇게도 그리시던 형수(兄嫂)님을 반갑게 만나 이승에서 못다한 정(情) 나누시면서 무심(無心)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어울려 동네 맛집 찾아다니던 때가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증손자 재롱떠는 영상 보여주시며 "우리 증손자 참 영특한거 같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던 모습. 다시 한번 더 뵈울 수는 없을런지요?

선생님! 큰형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극락왕생(極樂往生)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제자 弟 권혁윤 權赫允 (현 안동권씨 강릉중친회장)

행여, 당신의 처신 때문에 자식들의 행보에 혹 누(累)가 될까봐 말씀 한마디, 걸음 한 발짝에도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고, 노심조사 조심하시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知人)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시겠다고 날짜까지 잡아 놓으시고,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쁘신지 이렇게 황급하게 떠나시려 하십니까? 선생님이 남기신 약속은 유언(遺言)이라 생각하고 제가 대신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못다 하신일 하고 싶던 일들은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429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

100만 죽친 여러분!!!

3월 14일(월)은 제429주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일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초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 / 안동권씨 대종회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